

<2023년 11월 공무원외여행 귀국 보고서>

출장제목	- 해외자매우호지역교류사업 - 2023 전라북도 모범학생 미국 연수 관련 해외출장			
여행목적	- 전북도청 선발 모범학생 5명 미국 뉴욕 및 워싱턴 D.C 연수 인솔 - 현지 명문 교육기관, 국제기관, 학교 등의 방문으로 현지 문화 탐방을 통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제고 - 차년도 전북-뉴저지주 교류사업 논의			
여행국	미국(뉴욕, 워싱턴 D.C)			
여행기간	2023. 11. 2. ~ 11. 9.(6박 8일)			
보고서 작성자	국제진흥팀 김가영 주임			
출장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주임	형진하	

붙임 출장 결과보고서

- 해외 자매우호지역 교류사업 -
2023 전라북도 모범학생 미국 연수 관련 해외출장 결과보고

I 개 요

- 출장기간 : 2023. 11. 2.(목)~11. 9.(목) /6박 8일
- 출 장 지 : 미국 뉴욕 및 워싱턴 D.C
- 출 장 자 : 외국인교류팀 형진하 주임
- 주요내용
 - 전북 모범학생 5명 미국 뉴욕 및 워싱턴 D.C 연수 인솔
 - ※참가자 : 전북(5명), 전남(3명), 광주(4명), 인솔자(3명: 전북1, 광주1, 전남1)
 - 미국의 교육, 과학, 역사, 국제·정치 분야 관련 기관 방문
 - 차년도 미주 호남향우회 초청 모범 학생 연수사업 논의

II 주요내용

□ 미국의 교육, 과학, 역사, 국제 등의 분야 관련 기관 방문

- 교육기관 방문(3곳)

장소	주 요 내 용	비고
컬럼비아 대학교	- 캠퍼스 견학 - 컬럼비아 대학교 학부 및 학사제도 - 대학 학부 내 한국인 유학생 수(6,500명 중 159명) - 출신 유명인물(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미국 재무부 장관 등)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	- 캠퍼스 견학 - 육군 사관학교 유래 및 일반 대학교와의 차이점 - 한국인 학생협회 학생회장과의 만남(입학 방법 및 졸업 후 진로 설명)	
매릴랜드 대학교	- 캠퍼스 견학 - 매릴랜드 대학교 설명(명문 주립대학, 유명학과, 미국 대학 최초 한국인 유학생 졸업) - 출신 유명인물(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짐 월턴 CNN의 CEO)	

○ 과학기관 방문(2곳)

장소	주요 내용	비고
맨해튼 자연사 박물관	- 박물관 앞 루스벨트 동상의 의미 및 배경 설명 - 우주관, 천문관, 지구 행성, 운석, 인류 기원 등 견학 - 세계 민족관(아시아, 남미, 중미 등), 포유류·영장류·조류 관 등 견학	
국립 항공우주 박물관	- 국립 항공우주 박물관의 의미(세계 최대의 항공역사 박물관) - 미국 우주 개발의 역사 경청 - 라이트형제의 플라이어, 아폴로 11호(최초로 달 착륙) 등 유명 항공기와 우주선 관람	

○ 역사기관 방문(4곳)

장소	주요 내용	비고
9/11 메모리얼 기념관	- 9/11 테러 발생 배경(미국, 러시아, 아프가니스탄의 역사)과 희생자들 추모 - 9/11 목격자(호남 향우회 일원)의 목격담 및 테러 이후 피해자들의 삶에 대해 경청	
링컨 메모리얼 기념관	- 링컨 대통령의 미국 역사에 미친 영향 및 게티즈버그 연설문의 중요성 학습 - 링컨 메모리얼 기념관의 의미와 상징(인권, 인종 관계)	
한국전 기념공원	- 학생들의 헌화 - 한국전쟁의 또 다른 이름 '잊혀진 전쟁'의 의미 및 배경 - 해외 참전용사들을 위한 한국의 지원 사업 - 추모의 벽의 의미와 설립 역사	
자유의 여신상 박물관	- 자유의 여신상에 대한 구조, 역사, 의미 등 - 프랑스-미국 수교 역사 - 한인 이민 역사	

○ 국제·정치기관 방문(2곳)

장소	주요 내용	비고
UN 본부	- 유엔의 3가지 목표(Peace&Security, Development, Human right) - 유엔의 현 사업 경청 - SDGs의 정의와 주요 안건 경청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 공사관 건물의 변천사 및 역사적 의미 - 건물을 되찾는 과정에서의 한인 사회 노력 및 헌신	

□ 2024년 미주 호남향우회 초청 모범학생 연수사업 논의 결과

○ (미국 동부 연수 가능성 확인)

- 기존 서부지역(LA)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됐던 모범학생 연수가 처음으로 동부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
- 동부지역의 경우 미국의 교육, 역사, 과학, 국제분야의 기관들이 많아 참여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 높음
- 2023 모범학생 연수 프로그램 계기로 동부지역 향우회 2곳(필라델피아, 텔라웨어)이 지원 의향

○ (차년도 연수 프로그램 계획)

- 미주 호남향우회 초청 모범학생 연수사업은 미국 호남향우회 주관 전북·전남·광주 3개 시도의 공동사업으로 추진
- 2023년도는 광주에서 주관하였고 2024년도는 전남에서 주관
- 연수 일정은 7월 말~8월 초로 예정
- 세부사항은 실무회의(2024년 3월)에서 논의 예정

III 프로그램 설문조사

□ 설문조사 개요

- 설문 일자 : 2023. 11. 15.(수)
- 설문 참여자 : 전라북도 모범학생 5명

[만족도]

미국 뉴욕 연수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나요?

응답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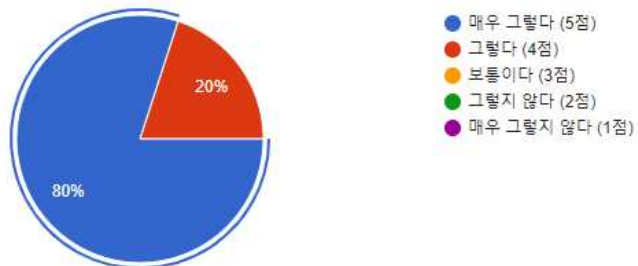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중, 프로그램 '매우 만족' 응답자 100% 달성

[프로그램 준비성]

미국 뉴욕 연수 프로그램이 충분히 준비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응답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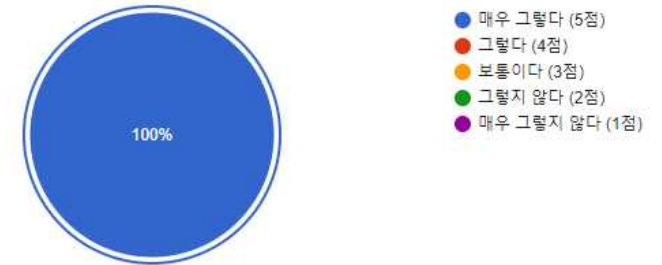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중, 프로그램 준비성 '매우 그렇다' 응답자 80% 달성

[모범학생 참여도]

미국 뉴욕 연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나요?

응답 5개



※ 전체 응답자 중, 모범학생 참여도 '매우 그렇다' 응답자 100% 달성

[인지 효과]

미국 뉴욕 연수 프로그램을 접한 후 뉴욕에 대해 전보다 더 잘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응답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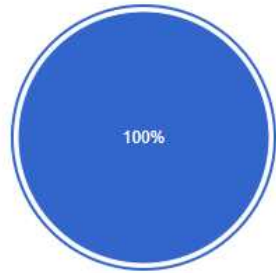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중, 인지 효과 '매우 그렇다' 응답자 100% 달성

[프로그램 구성]

미국 뉴욕 연수 프로그램의 구성은 적절했다고 생각하나요?

응답 5개



- 매우 그렇다 (5점)
- 그렇다 (4점)
- 보통이다 (3점)
- 그렇지 않다 (2점)
-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 전체 응답자 중, 프로그램 구성 적절 '매우 그렇다' 응답자 100% 달성

[기타 의견]

미국 뉴욕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응답 5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뉴욕에 가고 싶은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뉴욕 연수 프로그램 등의 구성은 훌륭했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약간의 개선 사항은 일정마다 차를 타고 이동해 뉴욕 거리 등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일정의 텀이 길어 여유있게 즐겼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프로그램을 하여 학생들에게 잊지 못 할 경험을 주었고 다양한 장소에 가서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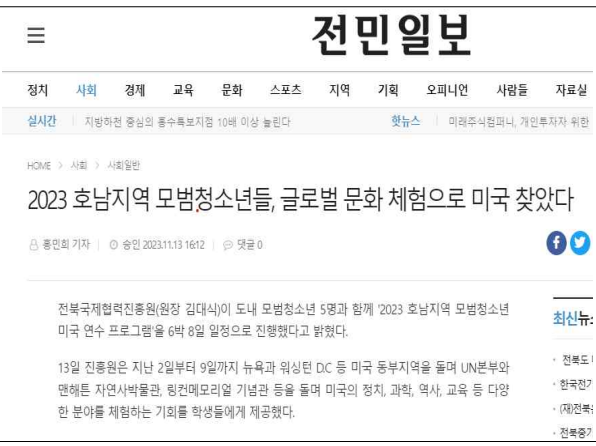
프로그램을 하면서 구성도 알차게 짜여있어서 좋았고, 식단도 미국 현지의 음식과 한식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진짜 인생에서 잊지못 할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말 그대로 좋은사람들과 좋은시간을 보낸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IV 보도 및 영상

□ 국내 및 해외 언론

언론사 명	링크
스포츠서울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69903?ref=naver 전국 광주·호남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모범청소년 대상 글로벌 문화 체험 운영 입력 2023-11-19 13:53:53 2023년 호남지역 모범청소년에게 미국 연수 기회 제공 미국의 정치, 과학, 역사, 교육기관 방문 등 다양한 견학 기회 가져 
전북도민일보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6944 35 전북도민일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자치행정 오피니언 기획 포토 스포츠 생활 HOKA > 정치 > 정치동향 전북도, 모범청소년 대상 글로벌 문화 체험 운영 5분 41초 2023-11-19 17:52 0 댓글 0 
서울경제TV	https://www.sentv.co.kr/news/view/672999 전북 청소년 "세계 진출의 꿈을 키웠어요" 전북 국제협력진흥원 주최 "2023년 모범청소년 대상 글로벌 문화 체험" 운영 

언론사 명	링크
전민일보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545 
한국일보 (KOREATIMES)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1109/1488738 

V 사진자료	
	
컬럼비아 대학교 도서관	메릴랜드 대학교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스미소니언(Smithsonian) 협회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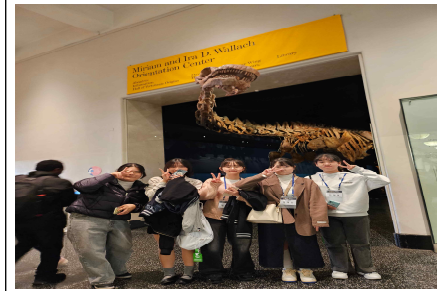
리차드 길더 센터



UN 본부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맨해튼 자연사 박물관



9/11 메모리얼 기념관



링컨 메모리얼 기념관



한국전 기념공원

친구야! 뉴욕연수 어때?!

2023 호남지역 모범학생 미국 뉴욕 연수 프로그램

프로그램 소개

대상 모범학생 12명 (전북 5명·광주 4명·전남 3명)
연차 2023. 11. 2.(목) ~ 11. 9.(목)
장소 미국 뉴욕 및 워싱턴 D.C
내용 - 미국 뉴욕 및 워싱턴 D.C 방문
 - 미정부 교육기관 방문 및 문화 탐방
 - 현지 미국 고등학교 방문 및 현지인 교류
주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미국 뉴욕 호남 파운데이션', '매릴랜드 호남향우회'

UN 본부

"UN 본부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초상화가!"

첫 해외연수 첫째 날, UN 본부에 방문했습니다.
 역대 사무총장님들의 초상화가 있었고, 한국인으로서는 반기문과
 자랑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UN 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내용에 대해 배우며 공동체 발전 문제와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뜻깊은 경험이었습니!

자연사 박물관

**"교과서에서만 보던
자연사 박물관이 눈앞에?!"**

자연사 박물관 방문은 여러 분야의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
 교과서에서만 접했던 유룡 전사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
 자연사 박물관은 다시 한번 방문해서
 친한친 지새워 보고 싶은 장소이고,
 이번 견학을 계기로 유익하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한국 참전 메모리얼

한국 참전 메모리얼, 정확히는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

'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문구의 의미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던 참전 장병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더 관심을 두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쓰여있던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의 의미처럼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견학을 마쳤습니.

학부모 소감

이번 미국 뉴욕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저의 아이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아이는 넓은 세상을 만나는 기회를 얻어
 보다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안목도 얻어온 것 같습니다!

부모와 함께해도 이렇게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 행복하고 좋은 기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

아이를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게 고민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점도 너무 감사합니.

아이들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라북도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

연수소감문

연수명	2023 미주 호남향우회 초청 모범학생 뉴욕 연수			
참여자	성명	정지혁	학교/학년	임실고등학교 1학년
연수정보	연수국가	미국	연수기간	6박8일

일단 이번 미주 호남향우회 초청 모범학생 뉴욕 연수라는 좋은 기회를 주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번 뉴욕연수에서 경험한 것을 인상깊고 또 가고싶은 곳이 떠나고싶은 그 조금 긴주려서 시골이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엔(United Nations)본부에 방문하여 유엔이 전세계적으로 무슬림을 하는지에 대한 회의와 슬로건그림 등의 전시도 잘 되어있어 지구촌의 안전,인권,경제개발,환경,자연재해 등 여러문제를 다룬다. 유엔본부에 가서 느낀점은 1차로 방문한 건물은 전반적으로 사무총장의 초상화가 달려있어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뉴욕 유엔본부에서 느꼈던 것같고, 상설전시관의외로 주축으로 하여 굉장히 많고 색깔이 다른 회의장들을 둘러본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었다.

연수내용

둘 번째로 인상깊었던것은 811 메모리얼기념관이다. 먼저 이 기념관에 들어가기전 811터라시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메모리얼홀에서 정지혁도영자지인 형제가 커서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미국의 방식을 느낄수 동시에 우리나라는 어떤 정신나 시고기 있을 때 추모하는 방식이 좀처럼 다를것이다. 시선에는 물이되고,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강지하는 우리나라는 방식(제도?)는 느꼈다. 그리고 기념관에 들어가서 811터라홀을 둘러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811터라홀의 상층부에 방문이 되도록해서 어떻게 건설되었는지를 알수있는 기념을 통해 알게되었다. 그리고 전세계적인 811터라홀 추모하는 한 사람으로써 리본모임으로 리본과 봉투가 봉입요원으로된 기념을 구해하였다.

세 번째로 인상깊었던 곳은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이다. 왜냐하면 일단 한국에서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면 그날 학교가 아닌 군대이고 매우 유서깊은 것이 한국인 육군사관학교인 미국 최고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West Point)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학교와 캠퍼스 풍경 그 이상이었었다 것 같다.

연수소감문

연수명	2023 미주 호남향우회 초청 모범학생 뉴욕 연수			
참여자	성명	한태영	학교/학년	전주군영서고등학교 1학년
연수정보	연수국가	미국	연수기간	6박 8일

새벽에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 탑승을 기다리는 중에 친구와 연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비행기를 탑승하였다. 갈 때 비행기 좌석이 내 옆이 비어 있어서 편하게 을 수 있다. 처음으로 기내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도착하고 나서 입국심사를 하는데 별다른 무사히 통과 하였다. 통과하고 난 뒤 버스를 타고 차 밖을 보는데 아직 왔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도착해서 호남 향우회 회장님을 만나 인사드리고 큰 차에 다같이 타서 출발하였다. 점심으로 고기집에 가 먹고 난 뒤 나트루로 가서 먹고 싶은 걸 사서하고 하서서 사고 지나가는 길에 뉴욕 시내를 멀리서 보는데 경관이 아름다웠다. 풀라상 한인 타운에 도착하여 찻고 저녁에 마트에서 사주신 간식거리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드렸다. 다음날 맨해튼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구경을 하는데 여러 가지 광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자에는 아주 다양한 광물이

연수내용

다음으로 메모리얼기념관에 가서 911 사건에 대한 흔적이나 건물의 잔해를 보았다. 이 사건을 자세히 몰랐지만 방문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당시 미국인들이 겪었던 사건을 안겨주어 화제가 됐는데 이런 테러를 받은 탈레반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시 희생되었던 사람들을 추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날 풀라버 대학교를 방문하여 구경하고 숙소로 가서 잤다. 다음날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견학하여 미국 육군들이 하는 일을 알게 되었고 신에 놀라가 아름다운 자연을 관찰할 수 있었다.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해서 미국의 상징인 백악관 구경을 하고 워싱턴 기념비를 봤다. 이 기념비는 연립상처럼 생겨서 정말 아름다웠다. 링컨기념관에 가서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인 링컨 조각상을 보고 미국이 링컨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 가서 비행기의 종류나 형상, 우주선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었고 저녁에 호남향우회 분들을 만나 저녁을 먹은 다음 홀스테이를 하였는데 잘 생겨주셔서 감사드렸다. 마지막 날에 주미 대한민국 공사관에 가서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를 알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 애로로 나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을 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날에 풀라버기 위해 비행기를 타는데 그동안 우리를 위해 수고 해주신 회장님들께 감사드렸고 헤어져서 아쉬웠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해서 6박 8일 동안

연수소감문

연수명	2023 미주 호남향우회 초청 모범학생 뉴욕 연수			
참여자	성명	이기영	학교/학년	국립침례기개교고등학교 1학년
연수정보	연수국가	미국	연수기간	2023.11.2-9

사려중과 내신들 학업에 지쳐있던 나에게 한 전하기 걸려왔다. 그 전하의 내용은 해외를 가보지 않았던 학생들의 한해의 미국견학을 갈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삶에 지치고 사립에 지치고 공부에 배다른 버거운 고등학교의 학교생활에 지쳐가던 나에게 아주 값싼한 제안이었다. 갑작스런 제안에 시간이 없었던 나는 하루종일 필요한 서류들을 달임선생님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준비해 보았다. 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다스리면 생각해보았다. '정신 이제 꿈인가 생식인가.' 왜냐하면 미국은 내가 가고싶었던 땅이고 기술로고 환경좋은 너무 좋은 나라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난 내가 누리가 너무 좋은 기회였기도 했기 때문이다. 너무 좋았다.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도 자랑하였다. 다들 좋았더라 축하해주었다. 그러한 축하를 받으며 모범학생으로서의 호남향우회에서 주최하는 미국해외연수가 11월2일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첫날, 1시에는 이튼스퀘어부터 일어난 준비하여 3시30분에 시티버스를 탑승하였다. 첫날이라 나로 포함한 5명은 어색하여 우물쭈물하였고 나또한 어색한공기 속에서 바스가 출발 하였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여행이라 마음이 설렘었다. 공항에 도착하자 전복5명을 제외한 전날, 광주에서 온 사람들 7명을 만났다. 비행기표를 뽑고, 수하물을 무치고, 밥을 먹으리 갔다 아무말 없이 이어지는 일정에 내가 못 알아차리자서 밤에는

연수내용

간식들을 했다. 선생님들의 '원하는 것들을 다 담으려' 말에 서로 눈짓을 보며 당기 시작하였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생애에서 이렇게 본격적인 안하고 물건들 사보았던 적이 없던가 하며 마치 내가 부자가 된기분에 후회없이 달았다. 간식들을 끝내고 숙소로 이동하였다. 남자는 2층을 사용하고 여자들은 지하를 썼다. 숙소는 깔끔하니 좋았다. 첫날이라 너무 피곤 하였다. 옛고나서 바로 잤다. 그렇게 이틀날이 밤았다.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다.둘째 날에는 '박물관이야상이다' 라는 영화의 배경인 맨해튼자연사박물관과 유엔본부를 견학하였다. 박물관은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박물관이라 그런지 보존도 너무 잘되어있었고 유리도 깨끗하였다. 나는 자연이라는 것을 식물, 동물 이정도만 생각하였는데 다양한 인공들의 생활 양식, 문화들도 자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놀라바 판달하였다. 유엔본부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것 같은 군사관들에서 유해하게 장난을 치며 받아주셔서 웃음이 났고 솔직히 말하여 동역에 있어서 설명을 얻어모 들어야 한다는 것에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사진들과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것들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인상깊었던 점이 있다면 본인이 중요한 유엔에서 일해 주려는 모습을 공개해서 직접 회의장에 들어가 신기하게 보았고 이런 회의들을 거쳐 전쟁국들의 상황들과 세계의 평화 이것들을 알고 이를 수 있구나 생각 하였다.그래서 감사하였다. 셋째날에는 맨해튼의 시대(자유의 여신상,월가,월드트레이드 센터,메모리얼 기념관)를 견학하였다. 배를 타고 두어하며 자유의 여신상을 보았다. 배에서 미국인들이 한국인을 치를 다다다 불어있어도 불편함을 안 느꼈는 것 같은데 멀리 그런것들을 싫어한다는 선생님의 말에 이러한 다스리었이 있구나 하여 조

- 14 -

연수소감문

연수명	2023 미주 호남행우회 초청 모범학생 뉴욕 연수			
참여자	성명	강한별	학교/학년	전북여자고등학교 2학년
연수정보	연수국가	미국	연수기간	6박 8일
연수내용	이 모범 청소년 미국 연수를 통해서 영화, 드라마 등에서만 접해 보았던 유명 관광지들을 직접 마주하고, 또 교과서, 학교 수업으로는 배우기 힘든 것들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예를 들자면, 사진으로만 많이 보았던 뉴욕의 대표 명소인 자유의 여신상이나 월드트레이드 센터, 백악관, UN 등의 장소를 방문하여 전주에서만 봤어나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호남 향우회 본토와 애기를 듣고 나누면서 노력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는 기회가 되었고, 인생의 목표를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이미 미국에 먼저 가서서 성공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었고,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점,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등의 이야기 등을 들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직접 대화를 나눴다면 실제로 미국에 오지게 된 계기나 힘들었던 과정 등을 직접 듣고 얘기할 수 있어서 한층 내가 성숙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 연수를 가기 전에는 나는 지금까지 단지 대학 진학만을 지금의 목표로 삼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서 대학 진학 후의 더 큰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후날, 대학이후로, 나아가, 저세상으로 나아가는 다양한 경험은 매우			

일본 자연사 박물관은 정말 여러 분야의 내용 볼수 있어서 가장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지도 선생님, 학생들과 전시 내용을 함께 구경하고 여러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교과서 등에서만 접하던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유명 전시들을 직접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또 여러 문화 전시관을 구경하면서 잘 알지 못했던 사실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문화권의 문화 양식들을 보고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알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 박물관에서 설명 배우 등을 다 들으면서 전시관을 여유롭게 구경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운 정도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

연수내용

또한 유엔 본사 방문도 너무 유익하였고, 실제 유엔 회의 등을 직접 참관할 수 있어서 생동감 넘치게 경험할 수 있었다. UN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 SDGs에 대해 배우고, 캄페스트인-이스라엘 분쟁 등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들으면서 공동체 발전 문제와 국제 정세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사용하는 여러 장소들을 직접 둘러보면서 유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존재하는데, 가이드 분께서 영어를 통해 설명을 해주시고 또 설명 등이 다 영어로 적혀있다 보니까 가이드 분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 따라서 앞으로 성인이 된다면 영어 회화 등을 배우고 듣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메릴랜드 향우회 본토에서 진행해 주신 홈스테이었다. 그 전까지 4일 동안 지냈던 민박집도 정말 너무 좋았지만 진짜 미국 생활이 어떨지는 궁금했었는데 이 일정을 통해 미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고, 향우회 본과 이야기를 나누

연수소감문

연수명	2023 미주 호남행우회 초청 모범학생 뉴욕 연수			
참여자	성명	경한별	학교/학년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연수정보	연수국가	미국 뉴욕, 워싱턴	연수기간	23. 11. 2 ~ 11. 9
연수내용	한겨울이 다가오는 11월, 처음으로 해외를 간다는 설렘과 처음 보는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대감, 소통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내한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을 지닌 채 미국을 갔다. 입국 심사를 하기 위해 대기를 하는 동안 과연 내가 실수하지 않고 말할 수 있을지 긴장하며 대기했다. 그러나 나의 긴장이 무색하게도 생각보다 수월하게 통과되었고 별다른 미국 연수가 시작되었다. 먼저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한국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동하면서 미국의 풍경들을 봤는데 한국과는 다른 넓은 도로들을 보고 확실히 땅이 넓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때문인지 이동 시간이 오래 걸렸다. 첫째 날은 플러싱 만에서 강을 봤다. 미국이와 그런건진 모르겠지만 한국과 달리 수질시설들도 다양하게 있었다. 저녁이 되고 숙소를 들어가 호스트분께서 주의할 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미국은 한국과 달리 목조식 주택이기 때문에 사립할 때 목조 건축에 커튼 한 개를 넣어 이중으로 해 물방울이 밖으로 튀기지 않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주의하였어야 했는데 이 점이 신기하였다. 둘째 날은 맨해튼 자연사 박물관과 유엔 본부에			

구로대가 사용했던 물품, 사진과 물건, 관련 서랍까지 거의 모든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다. 그 덕에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811테러의 많은 부분을 배우고 그날의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둘째 날에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등을 구경하였다. 웨스트포인트는 워드순과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학교에서도 보였는데 아름다웠다. 다섯째 날은 백악관, 링컨 기념관, 국립항공우주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링컨 기념관을 구경하면서 워싱턴 기념탑도 같이 구경하였는데 170m인 탑이라 그런지 크기가 정말 압도적이었다. 또한 기념탑이라서 그런지 이 탑의 높이보다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실제로 주위에 이 탑보다 높은 건물이 없어 멀리서도 탑을 구경할 수 있었다. 여섯째 날은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방문하였다. 건물의 옥상에는 대한제국 공사관이라는 것을 알리도록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가이드 분과 함께 내부를 둘러보았는데 곳곳에 옛날 사진과 함께 공간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었는데 옛날과 똑같이 복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셨는지 눈에 보였다. 8층에는 조미수호통상조약문,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여권 등 다양한 것들이 전시되어있었는데 이 또한 교과서에서만 보던 것들이라 그런지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었다. 향우회 본 집에서 홈스테이도 했었는데 좋았지만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올 수 있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추억들을 만들고 왔는데 모든 것이 찡찡함이라 많이

연수내용